



# 캄보디아 앵콜팀

## 11월 보고서

※ 주의 : 본 PPT는 캄보디아 앵콜팁 단원 하나의 목숨을 걸고 만들었습니다.



contents



앵글팀 조직도

Painting

중간평가

Goodbye party

우리들의 고민과 소감

YI & YLC

OPA

아띠 프로젝트 수정

소소한 일상



# 앵콜팀 조직도



**박정은 ( 박 회장님 )**

#아기장수은투리 #열쇠손으로뿌셔  
#도널드즐말았어요 #사비1위는나야나



**박정근 ( 박 부회장님 )**

#특기는유선잡기 #나는야클린보이  
#운동러버 #밥차아줌마 #사비2위등극



**박재희 ( 박 부회장님 )**

#미인은잠꾸러기 #조개아저씨어디갔어요?  
#옆집아기보러가자 #사비공동2위



**오정석 ( 오이사 )**

#나옥상갈게 #눈앞에서가방털렸어요  
#자전거귀신 #I love sarina



**정유선 ( 정인턴 )**

#우짜라고 #침대가로눕기  
#세수는3초컷 #지갑은여는게아니야



안보면  
배짚고야



# Chapter 2

## YI & YLC



Wednesday 6th November 2019  
Letter I i  
Ice cream





# YI ( English class )

#유선아 #자는거아니지 #정은언니 #먹살샷  
#Street Children #점점 #환경개선하는 #YI



YI에서 학생들은 주로 크메르어와 영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크메르어 수업을 할 때는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영어 수업일 때는 thida 선생님과 함께 아이들을 분담해 수업하고 있습니다.

비록 교실은 하나지만 각기 다른 테이블에 수준별로 학생들이 앉으면 정은과 유선은 각자 맡은 테이블의 아이들에게 준비한 영어 수업을 진행합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칠판도 하나라 어려움이 많았지만 수업을 하다 보니 아이들이 정은과 유선의 수업을 잘 따라 주어 큰 문제 없이 영어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 YI ( Computer class )



포토샵 수업을 시작한지 2달이 넘어가는 시점, 아이들이 포토샵을 다루는 것에 익숙해졌고 이제 자유자재로 툴을 사용할 수 있기까지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워하는 친구가 있으면 직접 나서 도와주고 포토샵을 하는 속도도 처음보다 훨씬 빨라져 수업시간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10월 말에 새로운 아이들이 많이 유입되었고 오는 아이들은 매일 오지만 몇몇 아이들은 학교를 올 때도 안 올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떠한 아이는 10번 진도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아이는 2번 진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수업을 진행하는 유선 단원에게도 혼란이 왔습니다. 다른 친구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며 자신도 저것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았고, 계획되었던 시험을 진행하기에도 어려운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로인한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점차 현지 YI 선생님들과의 소통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 YI ( Special Activity Class )



YI 가방 만들기 수업



YI 위생관리수업 ( 양치 )

아이들이 창의력을 얻을 수 있게 한 수업은 무엇이 있었나?라고 물어봤을 때 막상 대답을 할 수 있는 앵콜팀 단원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영어나 수학, 크메르 같은 공부나 컴퓨터 수업만 반복을 했기에 저희 앵콜팀은 또 다른 활동을 계획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체능 중 미술의 경우, 성별, 나이, 언어 등과 상관없이 학생 선생님 모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임을 알았고, YI 가방 만들기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캄보디아 아이들은 양치, 세수 등 위생 관련 문제에 취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앵콜팀은 위생관리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아이들에게 세수, 양치, 손 씻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매일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YLC

#정근쌤의 #설정샷 #사진찍은후  
#카메라검열을 #했다는 #소문이



앵콜팀은 YLC에서 영어 수업을 진행하는 담당 선생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정근쌤이 담임을 맡고 있는 반은 초등학교 저학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전 1시간, 오후 1시간을 영어 수업으로 진행하며 나머지 시간에는 Physical education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영어를 말할 줄은 알지만, 쓰거나 듣는 것에 익숙하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서 Reading & writing 을 위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친숙함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앵콜팀은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YLCC

#고정선생님이 #되었어요 #자꾸 #돌아다니면 #사탕 #안준다  
#숙제좀 #해와라 #아이들아 #복식호흡 #말 좀 들어라악!



정근쌤과 마찬가지로 재희쌤도 영어 선생님을 맡아서 한 교실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재희쌤의 반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의 학생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들마다의 실력이 달라서 재희쌤은 늘 2가지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고학년 아이들에게는 Story telling & Conversation 위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영어 수준이 부족한 저학년 아이들에게는 Reading & Writing 위주의 수업을 통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2달째 책임감 있게 자신의 반을 가르치는 재희쌤의 다음달의 모습을 기대해주세요!!!





봐.라.

# Chapter 3 Painting



설정샷주의



# Painting



**#페인팅은 #앵콜팀에게 #맡기세요**  
**#누가칠했는지 #잘칠했네**

저희 앵콜팀은 교육과 동시에 페인팅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고정 선생님이 되어 수업을 빠질 수 없었기에 교대로 번갈아가며 수업과 페인팅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앵콜팀의 세번째 페인팅 작업이라 처음보다 시간도 단축되고, 완성도가 높은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이! 거기까지.

# Chapter 4

## OPA





# OPA Physical Exercise program



#아침6시반 #다크서클 #Edm노래인건 #안비밀  
#돌아와서 #다시자기 #마을아가들도 #다함께

저희 앵콜팀은 격주에 한번씩, 일요일 아침에 Physical Exercise Program 을 OPA에서 진행합니다. 아침 6시 반에 나가야하기 때문에 조금 힘든 점도 있지만 노인분들과 다같이 운동을 하고 나면 뿌듯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저희는 귀국 전까지도 이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 OPA Cooking Class ( 11.19 ~ 11.20 )



**#비빔밥만드는게 #가장쉬웠어요 #OPA 1**  
**#10인분으로 #30인분만들기 #가스불은 #하나다**





# OPA Cooking Class ( 11.19 ~ 11.20 )



**#오늘은 다른 커뮤니티 #OPA 2 #다음에는 어떤음식?**

**#이번에는 #음식이 남았다 #아기먹이는 #유선엄마 #우리나 좀 #챙겨봐라**





## OPA Cooking Class ( 11.19 ~ 11.20 )

#계란반숙 #씨니사이드  
#이것만 #잘한거 #절대 #아니예요



저희는 11월 19일, 20일 이틀에 걸쳐 OPA에서 Cooking Class 를 진행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오셔서 조금 드려야 하는 일도 발생했지만 모두들 맛있게 드시고, 무엇보다 Cooking Class를 통해 오랜만에 Community 사람들이 다 모일 수 있었다는 말을 듣고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OPA Photo Studio

#End Poverty #캠페인 #끝나도 #진행합니다  
#쏟 #싸으릿 #형 #표정이.. #시장선거 #나가요?



저희는 End Poverty 캠페인을 통  
해 진행했던 Photo Studio 를  
현재까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들 사진을 찍으실 때 많이 어색해  
하시기도 하지만, 사진을 찍기 전 빛으로  
머리를 정돈하실 때마다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Photo Studio를 하면서 사진을 찍는  
것 뿐만 아니라, OPA 노인분들을 볼 수  
있어서 이 Photo Studio 활동은 저희  
앵콜팀이 좋아하는 활동 중 하나입니다.





어서와~  
캄보디아는  
처음이지?

# Chapter 5

## 중간 평가





# 간사님 오신 날

부제 : 그녀를 만난 순간...♥ (정근 단원 피셜)



밤을 새워 만든  
우리의 피켓 ^^

이지윤 간사님, 국장님,  
KB 원동호 대리님,  
정다솔 간사님을 위한 웰컴 푸드



## #오시기전에 #정근단원은 #화장실을 #갔다는 #소문이... #돈워리 #비해피 #♥

기대하고 기대하던 중간격려방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한국 YMCA전국연맹 국장님이신 김영수 국장님, 라온아띠 담당인 이지윤 간사님, KB국민은행 사회협력부 원동호 대리님, 양산 YMCA 정다솔 간사님까지 총 4분이 멀고 험한 캄보디아까지 방문해주셨습니다.

앵클팀은 미리 준비한 피켓과 캄보디아에 오신 것을 환영하는 다과회를 준비했습니다.

너무 짧지만 행복한 4일이라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앵클팀도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한국인을 이렇게 많이 본 적도 처음이라 어색해 하는 단원도 있었습니다.

그 단원은 누구일까요?

Hint: 자칭 미인은 잠꾸러기





# 중간 평가 ( PPT 발표 )



빛나는 분이 저희 찰리 간사님입니다!



앵콜팀의 PPT 발표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껏 3개월동안 앵콜팀이 어떤 생활, 활동을 하면서 지냈는지 간사님들과 국장님, 대리님, 캄보디아 YMCA 관계자 분들께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앵콜팀이 1주일 넘게 준비하면서 PPT, 개인소감, 영상을 통하여 3개월의 시간들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너무 떨려서 준비했던 것들을 다 못 보여줘서 아쉽다는 의견을 얘기한 단원도 있었습니다. PPT발표를 통하여 앵콜팀의 3개월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PPT #발표 #노랭이들의 #모임 #긴장감 #정은언니 #손지진주의





# 만찬 준비

#지윤 간사님의 #요리실력은? #콩줄기볶음 #맛..있었다...♥  
#KB대리님과 #간사님의 #선물 #제육볶음 #미역국 #계란찜



KB 대리님의 선물  
키가 훨씬하신 만큼  
센스도 훨씬하셨다..



지윤간사님의 콩줄기 볶음  
생각보다 너무 맛있었다!  
만찬을 뒤집어 놓으셨다!  
✓ 정전 속 요리하기

※ 뒷모습 - 아빠와 딸 아님 주의

### <메뉴>

달복음탕과 미역국, 고깃집에서 일했던  
정석단원의 계란찜 레시피

- ✓ 죽어도 안 알려줌
- ✓ 딱히 특별한 맛이 나지는 않음



다같이 스마일!





# 퀵링필드 ( 제노사이드 뮤지엄 )



← 가이드는 정은단원이!



중간 격려 방문을 해 주신 간사님들과 김영수 국장님, 원동호 대리님과 함께 캄보디아의 슬픈 역사가 담겨있는 제노사이드 뮤지엄에 방문하였습니다.

1980년대에 있던 캄보디아의 크메르 루주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거주하는 캄보디아의 역사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평소 캄보디아의 역사에 대해 관심을 크게 가지던 정은 단원의 설명을 통하여 더욱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의 슬픈 역사를 통하여 지금의 캄보디아를 더욱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 Local Market 방문

리버사이드 Night Market 방문

집 근처 Local Market에서 장보기



간사님들과 크메르어 선생님 Panha와 함께 집 근처

Local Market에서 식사 재료를 샀습니다. 그동안 앵콜팀

이 배운 크메르어를 이용하여 직접 흥정을 하기도 하고, 가

격 비교를 통해 알뜰하게 장을 보았습니다.

시장에서 산 재료를 통해서 고생하신 간사님들과 Panha

에게 근사한 점심식사를 대접해주었습니다.

밤에는 다같이 프놈펜에 유일한 Night Market를 구경

하여 캄보디아의 문화를 즐기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다같이 코코넛 아이스크림과 현지 음식을 먹어보면서 캄보디

아의 생활을 같이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끝나려면  
아직 멀었어요.

# Chapter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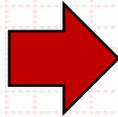
## 아띠 프로젝트

### 수정





# OPA 도로공사 → YMCA 도서관으로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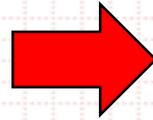


캄보디아 YMCA에서는 아띠 프로젝트  
 를 OPA 도로공사로 했으면 좋겠  
 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앵콜팀의 많은 회의를 통하  
 여 내린 결론은 단순 공사가 그치고  
 싶지않고, 우리가 기획하는 프로젝트  
 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따라서 현지간사, YLC선생님 등  
 많은 분 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YLC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의 생활한 3개월동안 획  
 일화된 교육 시스템을 경험하게 되  
 였고, 도서관이 생긴다면 보다 다양  
 한 교육 환경을 아이들에게 제공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 도서관 예정 자리 변경



원래 도서관 예정 자리였던 2층 교실에서, 1층 오피스로 예정 자리가 변경 되었습니다.  
아직 보완해 나가야 할 부분이 많지만, 캄보디아 YMCA 에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이 생긴다는 것에  
기쁨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억울하면  
직접 만들던가

# Chapter 7 Goodbye Party



Good bye Mr. Lot ♥



지난 3개월 간 Mr. Lot은  
저희와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  
다. 처음 캄보디아에 온 날,  
앵콜팀에게 프놈펜 구경을 시  
켜주고 싶다고, 먼저 손을 내밀  
어준 친구입니다.  
지금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캄보디아 YMCA를 떠나지  
만 한국에 돌아가서도 계속  
연락할 예정입니다 ♥

Merry christmas!

# Good bye Teacher Meng ♥



Meng 선생님은 저희 앵글팀이 캄보디아 YMCA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입니다. YLC 수업 준비부터 할로윈 데이 준비, 캠핑 준비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고 아낌없는 도움을 주셨던 고마운 분입니다..

# Good bye Sreynit ♥ + 김밥교실

#스라이닛이 #직접 #만들었어요  
#김밥교실 #오피스 #나누어주기

※ 싸우러 가는거 아님주의



이분은 왜 이러는 걸까요?



쓰라이닛은 데스크 선생님이로,  
저희와 허물없이 지냈던 친구입니다.  
그동안 프놈펜 맛집에도 데려가주고,  
김밥을 같이 만드는 등 많은 추억을  
함께 했던 친구입니다.

다들 맛있어 하셨어요 ㅎㅎ 진짜예요.

Merry christmas!

너가 이 사진에  
없어서 당첨이다.



# Chapter 8

## 소소한 일상



# 정근단원을 구출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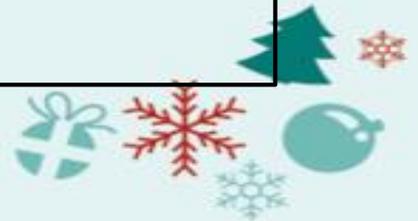


오늘은 뽀냐의 크메르어 수업이 있는 날이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수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화장실 안에서 “나 갇혔어!” 라는 소리가 들렸다. 정근 오빠였다. 우리는 다같이 힘을 모아 문을 열어보았지만 정말 문이 열리지 않았다. 뽀냐 선생님은 톱을 줄 테니 문을 썰어보라고 했고, 정근오빠는 말도 안된 다며 펄쩍 뛰었다. 뒤이어 올라오신 분톡 교장선생님은 거기서 자는 것도 좋은 경험이라며 오빠를 안심시켰다. 아마 찰리가 문을 부치지 않았다면 오빠는 거기 안에 있던 바퀴벌레와 하룻밤을 보냈을 것이다.

본인은 화장실 문을 잠그지 않았다고 하며 발뻘뻘했지만, 화장실을 가면서 문을 잠그지 않았다는 것도 이상하다. 아무튼 다사다난한 하루였다.

- 단원의 일기 中 -

#화장실에 갇힌 정근단원 #살려줘요 #배고픈데 초코바 좀  
#분톡교장쌤 \_ 거기서 자는 것도 좋은 경험이에요 #찰리의 문부시기 대작전





# 앵콜팀의 돼지 파티

#목숨걸고 #만드는 #PPT  
#김치찌개 #별4개반인데  
#어떻게 #반개만 #색칠하는지몰라



김치찌개★★★★☆  
출처 불분명  
맛은 확실히 있음.  
스팸이 더 맛있는 건 안 비밀.



참치마요덮밥★★★★★  
정근단원과 재희단원이  
주말 아침 굶주리다가 발명함.



김치제육★★★★☆  
정은단원과 유선단원이 만들.  
맛은 그저 그러나 생명에 위협이  
있어 별 4개임.



내가 이연복  
제자여

먹고 싶으면  
캄보디아 오던가



# Local food 탐방기



집 앞 치킨 ★★★★★  
고향의 맛, 뿌링클 맛이 나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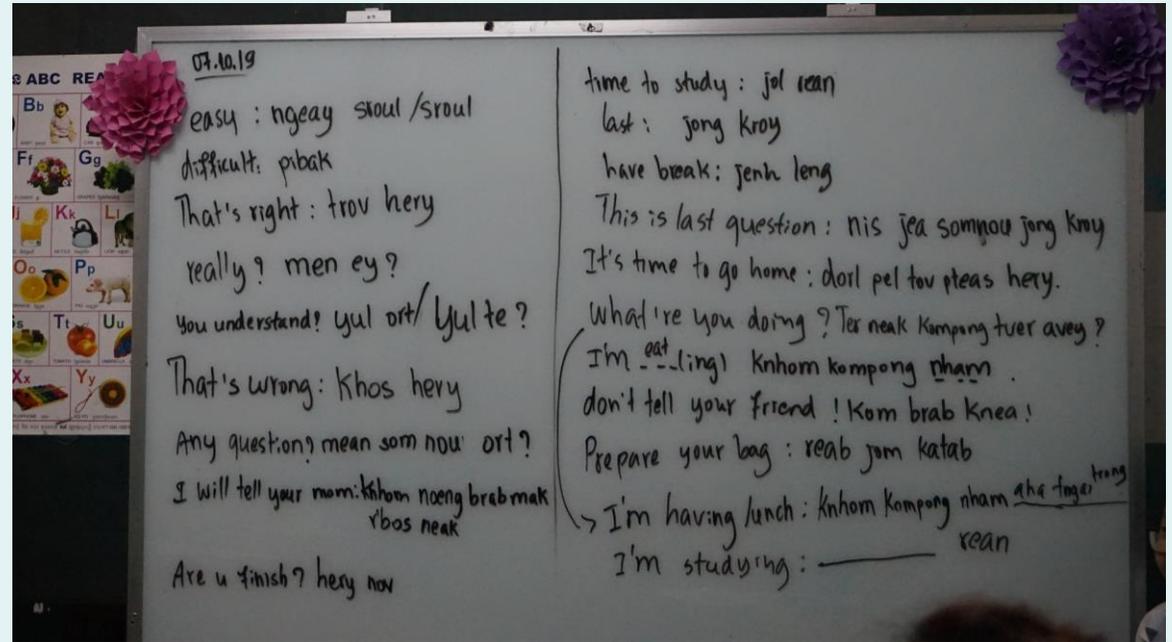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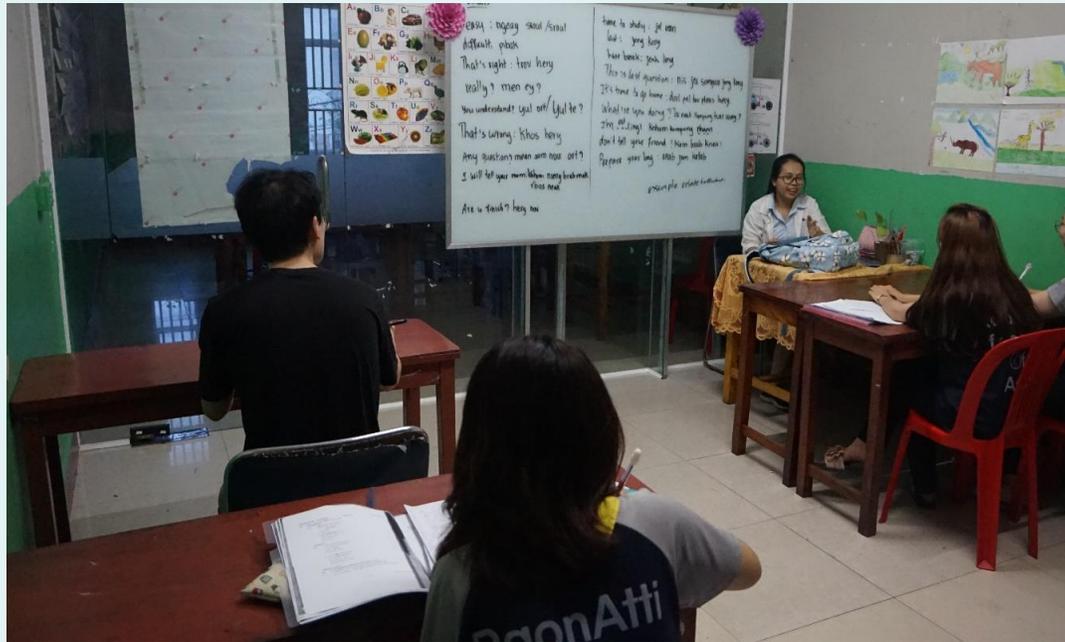
리어 ★★★★★  
맵고 짜고 자극적인 맛이다!



동네 육포 ★☆☆☆☆  
바닷물 먹는게  
좀 더 나을거 같아요..



# Teacher **반냐의 크메르수업** + 주옥같은 명언, 정근 잡는 반냐



저희는 지난 3개월 동안 매일 한 시간씩 크메르어 수업을 들어왔습니다.

저희 크메르어 선생님으신 반냐 선생님은 주옥같은 명언을 남기시기로 유명한데요.

귀에 쏙쏙 박히는 명언들 덕분에 저희의 크메르어 실력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 뽀반냐 선생님의 주옥같은 명언모음집 + 정근 잡는 뽀반냐

# S1



정근 : 책 안 가져왔어요. (당당)



뽀반냐 : 책 안 가져왔는데 바지는 왜 입고 왔니?

# S2



정근 :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못하는 친구도 있는 거예요. 선생님



뽀반냐 : 뇌는 다 하나씩 있는데 왜 너만 못하니?

# S3



정근 : 야아, 다 조용히 해. 수업하게



뽀반냐 : 다른 사람들은 조용하니까 너만 잘하면 돼.



정근 : 왜 맨날 저한테만 그러세요?



뽀반냐 : 미안 ~^^

**뽀반냐와 정근의 2차 대첩 Coming Soon**

# 선생님들과 친목도모



보띠와 축구경기

This is competition  
(정근단원이 5달러를 빼앗겼다는 후문이...)



YI 선생님들과 배드민턴

(With 시크 니마이, 스마일 티다)

YLC 선생님들과 꾸이띠유

(그 뒤로 꾸이띠유 귀신이 된 정석, 정은 단원)



# 보너스 (우리 아이들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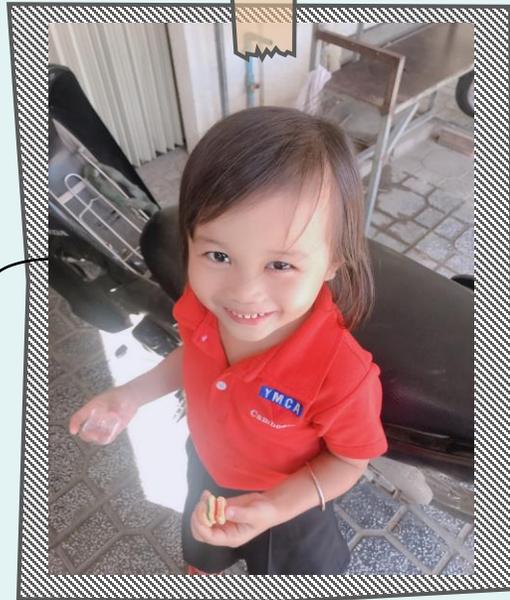


## 쓰라이엄

- ✓ "너 옆에 비글 왔다"
- ✓ 별명 : 비글
- ✓ 특징 : 애교도 많고 앵콜팀에게 수없이 많은 윙크를 날림. 치명적임.

## 썩쟈

- ✓ 정석단원의 원픽
- ✓ 별명 : 감자돌이
- ✓ 특징 : 불이 모짜렐라 치즈처럼 흘러내림



## 나이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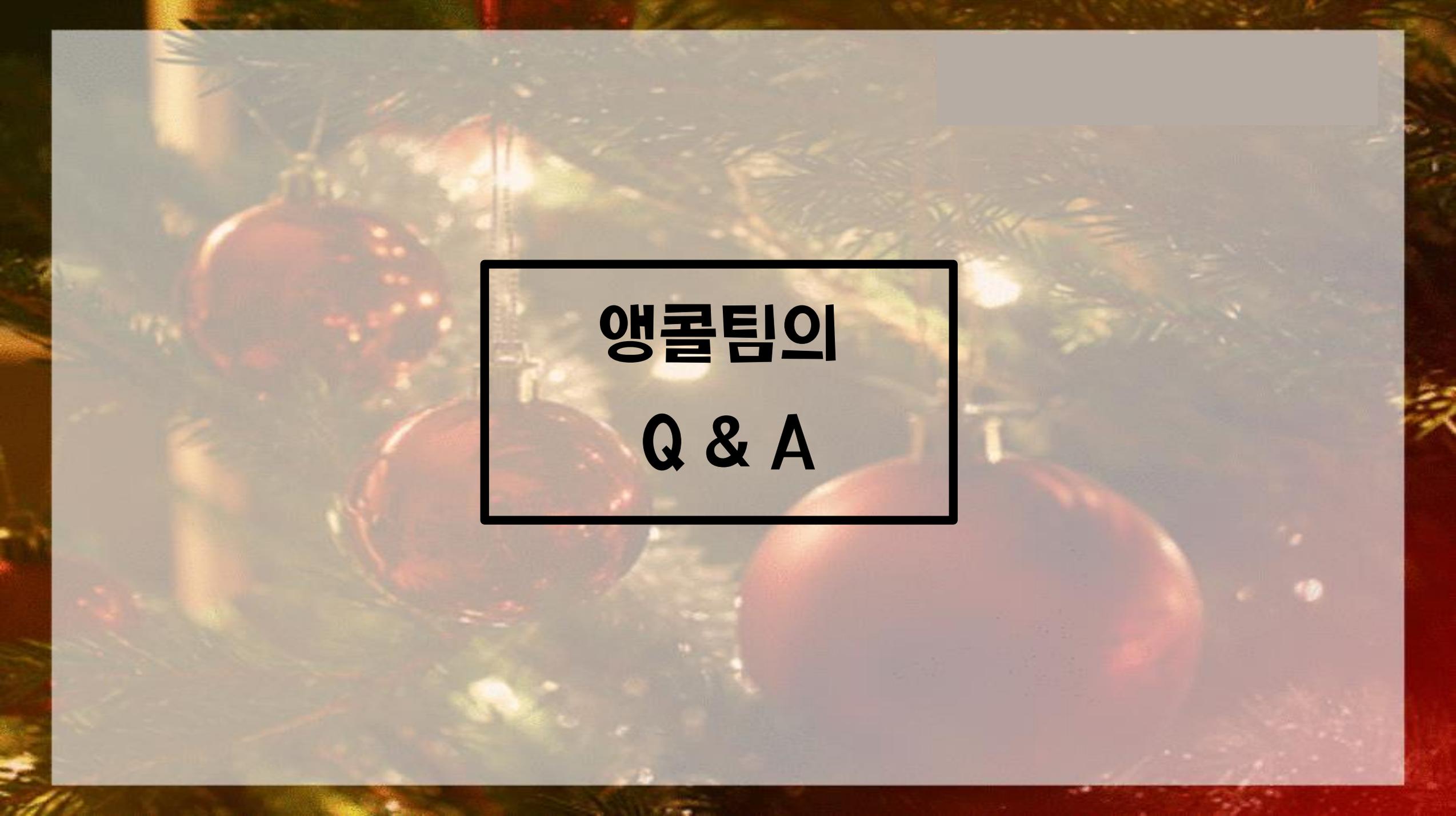
- ✓ 재희단원의 껌딱지
- ✓ 별명 : 스마일엔젤
- ✓ 특징 : 매일 먹을 것을 손에 들고 다님



## 메이쥬

- ✓ 정근단원의 원픽
- ✓ 별명 : 마이쥬
- ✓ 특징 :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매력의 소유자임





**앵콜팀의  
Q & A**



앵콜팀의 고민은?



정은 단원

아띠 프로젝트가 제일 큰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다. 우리가 스스로 기획하고 예산까지 직접 짜는 활동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싶고,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싶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동안 최대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



유선 단원

중간평가가 끝난 후 우리의 남은 일정이 크게 잡혀졌다. 아띠 프로젝트, 홈스테이 그리고 마무리 평가까지. 일정을 보니 내가 YI에 갈 수 있는 날들이 많지 않았고 아이들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났다. 내가 떠나면 아이들이 지금같이 컴퓨터 수업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을지, 남은 기간동안 내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것을 알려줄 수 있는지 등 이것 저것 여러가지가 걱정이 되었다. 또한 아이들에게 어떠한 활동과 교육을 해야 더 깊이 있고 알찬 내용을 전달하여 아이들에게도 도움되고 나도 후회없이 돌아갈 수 있을지 고민이다.

# 앵콜팀의 고민은?



재희 단원

내가 가르치고 있는 반은 아이들의 수준도 천차만별이고 교재가 있지않아 매일 인터넷이나 참고 자료를 통해 수업을 준비한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떤 때는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거나, 아이들이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 주제를 바꾸는 경우도 종종 있다. 현재는 수업을 어려운 것 하나, 쉬운 것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준비해가서, 아이들의 이해도를 살펴보며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석 단원

(하.. 짜려보고 있네)  
정신없이 살다 보니 절반이 지나고 중간평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절반의 기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돌아보며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런 저런 것들을 보며 남은 기간동안 준비를 더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남은 2개월 더욱 알차게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더욱 하게 되는 한달이였다. 남은 기간 아띠와 홈스테이, 캠핑 등의 일정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될지 기대되기도 하다.

## 앵콜팀의 고민은?



정은 단원

이번 달에 UI에 매일 가면서 아이들과 크메르어, 영어 이외에도 재미있는 수업들을 함께 많이 하고 싶었다. 그래서 미술, 음악 등의 수업을 계획했었다. 그런데 생각보다 내가 계획한 수업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미 thida 선생님이 짜 놓은 시간표가 있다 보니 주체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다. 선생님은 물론 내 의견을 적극 존중해 주시겠지만 아이들이 영어만 해도 매우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보니 하루 수업을 예체능 수업으로 하기 부담스럽기도 했다. 그래도 아이들과 좀 더 다양한 수업을 함께 하고 싶었던 계획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아 아쉬운 마음이었다. 벌써 활동기간이 두 달 밖에 남지 않아 아띠 프로젝트에 전념해야 할 때가 됐다. 이외에도 특히 남은 두 달은 홈스테이 등 여러 행사가 있어서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얼마 남지 않은 교육활동도 소홀히 하지 않고 알차게 보내고 싶다.



정은 단원

11월이라는 기간은 눈 깜짝할 새 지나갔다. 벌써 라온아띠 프로그램이 2달도 안 남았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다.

YLC에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아이들 덕분에 즐거운 날이 많아서 행복한 시간들이었다.

이제 슬슬 지쳐가기 시작하는 타이밍에 간사님들이 오셔서 좋은 말씀과 격려를 해주셔서 힘을 얻게 되었다.



정은 단원

기관 로테이션으로 11월 한 달 동안 YI에 매일 가게 되었을 때 솔직히 조금 막막했다. 지난 10월에 YI에 거의 가지 않아서 나도 그렇고 아이들도 나를 낯설어 할거라는 생각에 긴장했다. 하지만 하루하루 아이들과 수업을 함께하면서 금세 친해질 수 있었다. 매일 가는데도 아이들이 우리가 오는 것을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어주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했다. 그리고 11월 한 달이 끝나고 12월이 돼서 다시 YLC에 있게 됐을 때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11월 마지막 주에는 간사님들의 중간 격려 방문이 있었다. 팀원들끼리 지낸 지 세 달이 지나서인지 다른 한국인이 우리 생활공간에 있는 게 무척 어색했다. 처음엔 긴장되고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이번 중간 격려 덕분에 우리 팀의 활동을 다시 한 번 되돌아 볼 수 있었다. 활동기간이 벌써 두 달도 안 남은 만큼 후회없이 한국에 돌아갈 수 있도록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

앵콜팀의  
소감은?





재희 단원

벌써 활동 기간의 절반이 지나고 중간 평가도 지나갔다. 정석 단원의 “다음달에 우리 귀국해~” 라는 말이, 정말 놀랍게 느껴졌다. 지난 3개월간 살면서 지금은 캄보디아 YMCA에서 일하는 한 평범한 직원처럼 지내고 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캄보디아 사람들의 일부가 되어 남은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귀국 전까지 남은 아띠 프로젝트와 홈스테이도 무사히 잘 마쳐서 활동을 마무리 하고 싶다.



유선 단원

처음 라온아띠를 시작할 때 중간평가는 까마득하고 감흥이 없었는데 막상 다가오니 중간임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에서의 생활이 끝이 난 것같이 느껴졌다. 곧 한국으로 가는 것처럼 말이다. 아직 2달 정도 더 남았고 프놈펜에서 더 살 수 있다는 것이 다행으로 느껴졌다. 뭔가 아직 할 수 있는 것이 더 남았고 아쉬웠던 부분이 남아 있었던 것 같다. 남은 기간은 중간 평가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아쉬운 부분을 더 채운 후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앵콜팀의  
소감은?





정석 단원

중간 격려 기간 중 간사님들께서 해주신 말들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아띠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 아띠를 통해 변화된 것, 아띠를 통해 성장한 것, 아띠를 통해 얻는 것 등 3개월 간 라온아띠를 진행하며 내게 어떤 변화와 성장들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라온아띠를 통해 해외에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팀활동을 하며 생기는 갈등과 협력 등 많은 경험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는지 고민하게 만들어 주셨다.

하지만 아직 명확히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남은 2개월, 더 나아가 라온아띠를 마치고 나서까지 아띠를 통해 무엇이 나의 미래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할 것 같은 중간 격려 방문이었으며, 나의 라온아띠에 대해 되돌아볼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 너무 좋았다.

남은 기간 동안 나의 아띠란 무엇인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며 나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앵콜팀의  
소감은?



A close-up photograph of three young children of Southeast Asian descent. The child on the left is a boy with short black hair, wearing a yellow shirt, looking slightly to the side with a smile. The child in the middle is a girl with black hair, wearing a yellow shirt, smiling broadly at the camera. The child on the right is a boy with short black hair, wearing a red shirt, looking directly at the camera with a neutral expression. The background is a classroom with a green wall and a wooden chair.

**지금까지 캄보디아 앵콜팀이었습니다 ♥**

**Coming Soon**